한국 축산업 위기극복 희망적, 투자가치 충분히 있다.

□ 정리 / 김동진 기자

동물약품과 유전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메리알이 지난 10일 국내에 자회사인 메리알코리아를 설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본고는 이날 메리알코리아의 설립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싱가폴에 위치한 메리알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의 자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Monty LEE 부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Monty LEE 부사장

△ 메리알은 어떤 회사인가?

Monty LEE : 메리알은 프랑스 롱프랑의 롱메리유, ISA 사업부와 미국 머크사의 Merck Agvet, Hubbard, BUT 사업부가 지난 '96년 8월 1일 통합되어 50/50의 합작 투자회사로 변신한 동물용 의약품 및 양계유전학 분야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메리알은 영국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150여개국에 진출하여 30개의 자회사, 16개의 연구소, 25개의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직원만 해도 6,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화 17억불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리알은 동물의약품과 백신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바드와 이사는 원종계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가금유전학 분야에서 선두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메리알의 사업방향과 세계시장의 참여비율은?

Monty LEE : 메리알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상호간의 시너지효과에 따른 세계적인 연구

개발력 및 기술적인 지원을 활용하여 양계분야 뿐만 아닌 모든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1억2천만불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양질의 원료를 이용해 보다 싼가격의 제품생산에 노력할 것입니다.

메리알은 현재 미국에서는 18.5%, 프랑스에서는 24.9%, 브라질은 28.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투자가 늦은 관계로 일본에서는 겨우 2.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미미한 실정입니다.

△ 한국의 축산업에 대한 견해와 투자를 결정하게된 이유는?

Monty LEE : 메리알은 싱가폴에 동물 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축산업이 위축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 국내 경쟁사들과의 관계 유지는 ?

Monty LEE : 한국에는 이미 5개의 백신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태국의 경우 한국보다 시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7개의 백신제조회사가 존재하고 있어 공급초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실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각 업체들의 생산 가동율이 20~3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여 6개 생산공장이 가동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과잉을 조장하는 꼴이되므로 이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업체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협력관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실한 회사와의 합병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판매전략은?

Monty LEE : 현재로서는 우리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내 질병의 실상과 특수성들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저희 제품은 30여종으로 대부분 양계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소, 돼지, 기타 애완용 제품도 다양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메리알 코리아팀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누구보다도 한국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메리알의 전신인 롱메리유의 제품이 판매망을 확보하여 현재에도 저희 제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메리알코리아팀이 고객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동물약품 시장에 접근해 갈 경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계